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문화관광’·‘백신’ 화순 대표 특산물로 만들겠다”

구복규 화순군수

“화순의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일구고 ‘인구 10만의 활력 넘치는 스마트 화순’을 만들어 ‘군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27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화관광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 스마트 신도시 개발, 화순전 생태문화공원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화순의 미래 지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공정과 혁신을 통한 활력 넘치는 화순 건설’, ‘문화관광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남도관광 1번지 실현’, ‘고소득 창출로 돈 버는 부자농촌 건설’ 등 군정 방침과 주요 추진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 군수는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청년 푸드트럭, 은퇴자 영농 지원 등을 제시하고 “담대하고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주·유입·출생 인구 제고라는 ‘삼박자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광”과 “백신”이 화순의 미래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화순산(産) 관광상품과 백신을 ‘화순 대표 특산물’로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은퇴자 영농 지원 ‘삼박자 인구 정책’ 고인돌 공원 꽃 축제·스마트 신도시 개발·화순전 생태문화공원 조성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군정 목표를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로 정했다. 이에 대한 구상은...

▲ ‘인구 10만의 활력 넘치는 스마트 화순’을 만들기 위해 백신·바이오, 농축산업,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하는 군민행복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스마트 신도시 개발, 화순전 생태문화공원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생활 SOC와 정주 여건을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겠다. 특히, ‘문화관광’과 ‘백신’이 화순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관광 화순을, 백신을 화순 대표 특산물로 만들겠다. 화순의 미래 지도가 달라질 것이다.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 ‘화순의 문화관광 르네상스’, 관광객 5백만 시대를 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인돌 공원 사계절 꽃 축제 개최’다. 내년부터 열 수 있게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꽃 축제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화순

관광의 브랜드’로 만들 자신이 있다.

아울러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등 읍·면별 관광 특화 인프라 구축, 화순읍 개미산 문화관광벨트 조성도 구상하고 있다. 계획 중인 개미산 개발과 화순전 생태문화공원, 하니움, 캠핑장 등이 연결되는 ‘산림-문화관광-스포츠-캠핑 레저 벨트’가 형성돼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이밖에 도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마케팅 등을 전담할 화순문화관광재단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농민들이 고소득을 창출하는 ‘부자 농촌’ 건설에 대한 기본 구상은...

▲ 특화 작목 확대 육성, 지역 특화 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 소평물 화순팍 활성화, 은퇴자 영농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생육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화순군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팍(자연속)’을 활성화해 온라인 판로도 개척하겠다. 은퇴자 정주 인구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은퇴자에게 다목



적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생산 시설을 지원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활성화, 청년 농업인 육성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추진해 부자 농촌을 만들

겠다. -인구 고령화와 감소, 덩크족 증가 등에 대비하는 복지정책은...

▲ 인구문제는 정주, 유입, 출생 인구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유입에 방점이 있었다면, 민선 8기에는 정주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는 데 좀 더 힘쓰겠다.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을 만들겠다. 그중 하나가 ‘1만원 임대주택’이다. 매년 청년과 신혼부부 100명에게 월 임대료 1만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돌봄 체제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청년 푸드트럭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는 친근한 소통군수, 유능한 문화관광군수, 준비된 행정군수, 세일즈 경제군수가 되겠다. 무엇보다 군민을 섬기고 소통행정을 펼치겠다. ‘군민의 의견이 정책입니다’라는 기치로 각계각층과 ‘사랑방 좌담회’를 열고 있다. 적극적으로 좌담회 개최를 요청해 달라. 어느 단체장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군민과 지역 사회의 협력이 없으면 이를 수 없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달콤한 화순 천도 복숭아 나왔어요”

스위트퀸·옐로드림·홍백·금황 국내 육성 품종 첫 수확 시작

“화순에서 수확한 달콤한 복숭아 맛보세요.” 화순군이 농가에 보급해 온 국내 육성 복숭아 품종의 첫 수확이 시작됐다. 군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국내 육성 복숭아 품종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화순은 복숭아 주산지로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수확기 집중에 따른 노동력 분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 10ha 규모의 농장에서 보급 품종을 재배했다.

7월부터 출하가 시작된 품종은 백육계 ‘홍백’, 황육계 ‘금황’, 천도계 ‘스위트퀸’과 ‘옐로드림’이다.

옐로드림은 겹질째 먹는 당도 높은 천도복숭아로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국내 최초의 스위트네타린(달콤한 천도) 품종이다. 금황은 7월 초 수확하는 조생종 황도복숭아로 과실의 크기가 300g 이상인 대과종이다. 7월 하순부터는 홍백과 스위트퀸도 출하 예정이다.

군은 달고 달 시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복숭아 소비 경향에 맞춰 현장 평가회와 농가 기술지



화순군의 한 농장에서 농민이 금황을 들여보고 있다.

<화순군 제공>

원 등을 통해 달콤한 천도 품종의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홍백, 금황, 스위트퀸, 옐로드림에 대한 지역 적응성 실증과 함께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달콤한 천도 품

종이 복숭아 주산지인 화순에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품종 보급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재배 기술 개발·보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마을주치의 순회 진료 8월 시작

화순군이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찾아가는 마을 순회 진료(마을주치의 제도)’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을주치의 제도’는 구복규 군수의 공약으로 거동 불편, 교통 불편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건강을 보살펴주는 사업이다.

군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으로 마을주치의 진료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진료팀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혈

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검사로 주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무료진료,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가 건강검진 안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치매 조기 검진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순군보건소는 마을주치의 운영에 앞서 지난 22일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외과, 한의과, 치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마을주치의 제도의 추진과 하반기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접수

군 내달 16일까지

화순군이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접수를 지난 27일 시작했다.

사업대상은 화순군 관내 인증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배, 과수, 채소, 식량작물에 한정된다. 잔류농약 검출 농가, 관외 농지 경작자, 인증 취

소 농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단계는 유기 인증의 경우 ha당 ▲배 35만원 ▲식량작물 60만원 ▲과수채소 100만원을, 무농약 인증의 경우 ha당 ▲배 20만원 ▲식량작물 40만원 ▲과수 채소 80만원으로 인증단계와 작물에 따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친환경농법을 실천해 인증생신 등 지급 시점에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때, 지급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올해 12월 생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고흥군의회 출범”

작은 소리에 드워 기울이는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